다니엘 1장

1장의 역사적 배경

주전 609년에 앓수르-이집트 군대와 바벨론-메데 연합군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건너 하란에서 大戰이 있었다. 이 전쟁으로 앓수르는 패하여 사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갈그미스에 진치게 된다. 이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해안선을 따라서 북진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유대의 요시야 왕이 므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하고 (왕하 23:29-30) 3개월 후 바로 느고가 귀환 길에 예루살렘을 쳐서 여호야하스를 폐하고 엘리아김을 왕위에 올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다.

대전에서 승리한 바벨론 왕 나보폴랏살과 이집트 사이에 밀고 당기는 전투가 계속 되다가 주전 605년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아람과 팔레스틴을 휩쓸었다(왕하 24:1a). 이 때가 여호야김 제3년(티쉬리 역법, 단 1:1, 혹은 4년-니산역법, 렘 46:2)이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호야김과 왕족들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때마침 부친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으므로 여호야김을 풀어주고 충성을 맹세시킨 후에 일부 포로만 끌고 급히 귀환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1차 바벨론 포로). 부친 사후 21일 만에 바벨론 왕으로 즉위했다.

주전 601년에 이집트가 바벨론을 이기자 여호야김이 배신한다(왕하 24:1). 느부갓네살이 다시 출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란이 일어나 여호야김을 성 밖에서 죽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운다. 경건한 사람들이 왕의 시신을 거두어 조상들의 무덤에 묻어준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대하 36:10), 여호야긴을 재위 3개월 만에 1만여 명의 포로와 함께 끌고 갔다(주전 597, 2차 바벨론 포로, 에스겔이 포로로 감).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다시 이집트에 붙는 반역으로(렘 27, 28장) 느부갓네살이 다시 출전하여 일년 반 동안 포위되었다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다(왕하 25:8-10). 시드기야는 두 눈이 뿜힌 채 포로로 끌려갔고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다(주전 586, 3차 바벨론 포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8년 만에 대규모 유대인 포로가 바벨론에 도착하였고, 다시 11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유대인들이 잡혀왔다. 이 때에는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 있었다. 포로로 온 유대인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발대가 된 셈이었다. (위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대하 36:6-12, 왕하 24:6, 렘 22:19에 여호야김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이 차이점이 있어서 기록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정된 것이다)

1.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 기구를 다 탈취하지 않고 '얼마만 가지고 간 이유를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보자. 나중에 2회에 걸쳐 재침공할 때는 거의 모든 기명을 탈취한다(왕하 24:13, 25:14-16).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바벨론을 도왔던 것처럼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왕을 세우려 했던 것 같다. 여호야김은 대적인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부친의 서거 소식을 듣자 사로잡은 왕 여호야김을 일단 풀어주어 충성서약을 받고 왕위를 유지하게 하고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다. 성전 기명을 자기 신의 보고에 두었다는 것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한 기념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기명들이 장차 빼앗기게 될 것도 1세기 전에 미리 예언되었다(왕하 20:13-18).

2.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닥쳐 온 변화는 무엇인가?

신분의 변화: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바벨론의 포로:** 유대에서 출셋길이 흰한 엘리트들이었지만 외국의 포로로 잡혀서 여차하면 인간 대우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환경의 변화: 나라를 빼앗김, 포로로 잡혀감, 외국어 사용, **장씨개명:**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시대에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고 목숨을 건 사람도 있었고, 욕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기도 했다. 나라가 망해버린 민족의 처절한 아픔일 수 있다(다니엘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음식의 변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을 먹도록 함: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역일 수도 있다.

3.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우수한 인재를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정복지의 인재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높은 관직에 등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로마보다 헬라가 더 언급되는 것도 문화적인 우수성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도 세속적인 이유만 따진다면 학문적 우수성 때문이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고물과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4. 느부갓네살이 구하는 인재의 기준이 무엇인가?

신체적인 특징: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적인 특징: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많이 배운 사람이 크게 쓰임 받은 좋은 예는 모세(오경을 남김), 다니엘, 바울(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함)을 들 수 있다. 수재자였던 베드로가 남긴 것과 내용은 고사하고 분량만 비교해 보아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인격적인 특징: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 적절한 예의범절, 몸가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출신 성분: 왕족과 귀족,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특별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이들을 포함하는 통칭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5.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선수와 악수 한번 한 것도 영광으로 여기고 손을 씻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영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

왕의 학교에 선발된 것: 일류대학에 합격한 것도 온통 난리를 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원래 왕의 몫이었다. 왕의 것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 손 한번 잡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판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른 포로들이나 바벨론 사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이해한다면 이것을 물리치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 알 수 있다.

6.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분명히 히브리식 이름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끝내는 나라가 망하고야 마는 이스라엘에서 이들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음에도 분명히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랐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이름이다. 이들의 이름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다음 이름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 엘리아, 사무엘, 느헤미야, 요엘, 엘로힘, 오바다, 여호와(야웨).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엘’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란 뜻이다. 반면에 벨트사살의 ‘벨’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신앙인에게는 모독적인 이름인 셈이다. 나머지 세 친구의 개명된 이름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름 끝에 붙어 있는 ‘야’도 여호와(야웨)의 축약형이다. 하나냐는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다.

7.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나라의 독립도, 자신의 출세도, 집안의 안녕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함. 어쩌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학 입학, 취직, 승진, 재산 축적...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들의 더럽히지 않으려 함: 스스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출석하는 모든 행위가 스스로 정한 것, 자발적인가? 아니면 이런 저런 강압에 이끌리거나 벌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잡힌 타율인가?

8.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은 대단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면에서도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떨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의 축복의 시발점은 무엇일까?

이런 어려운 때, 주변의 모든 환경이 변한 때에 ‘뜻을 정한’ 신앙 때문이다.

9.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왕의 명령을 거부. 환관장의 반대, 동료들의 질시(?) 남들은 그러지 않는데...

10. 9절과 10절은 상호 모순 같아 보이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말인가? 안 들어주었다는 말인가?

8-9절은 전체적인 개관을 말한 것이고, 10-16은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환관장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허락했다는 것이다. 환관장의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11.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스스로 결심한 것은 장한 일이다. 덧붙여 칭찬 받을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환관장에게 거부당했음에도(10절) 다른 핑계를 대거나 굴하지 않고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 노력한 점이다. 마침내 그들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은 환관장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세워져 감독하게 한 자를 설득한 것이다(11, 16). 감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호소력이 있는 제안을 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함부로 밀어붙이는 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지른다.

12.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요청한 것은 채식과 물이다(12). 굳이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니까?

채식이 육식을 대신하는 것처럼 물은 포도주를 대신하는 것이다(16).

13. 어떻게 채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라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 스스로 뜻을 정하여 살자. 실제로 채식이 육식보다 피부를 더 윤기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해답이 아니다.

14. 뜻을 정할 때 왜 하필이면 먹는 문제였을까?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았을 텐데, 가령 하루에 세 번 씩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100장씩 꼭 읽는다던가?

그런 것은 기본이고 특별히 변화한 환경에 대해서, 특히 육식을 피하려 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이다.

15.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말로 예뻐서 보였다.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 그들이 더 예쁘게 보였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고 우상이 득세하고 있는 때였으므로(1-2)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붙이신 이유이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바벨론의 우상에게 잡혀간 것처럼 보이는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용사들인 셈이다.

16.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포로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처럼 대우해 주었다.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을까? 문제는 잘 해준다고 해주는 대접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이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를 고의로 괴롭히는 경우도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가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일에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것, 생일 축하 해준다고 술집에 데려가는 것(자기들 방식대로 축하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좋은 선배를 소개시켜 준다고 주일에 만나게 하는 일, 성공을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르치는 일

17.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얼굴이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함: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함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심

다니엘에게는 보너스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줌

18.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들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별 개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니엘은 이들 중에서 대장 격이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 외에 보너스까지 받은 것 아닐까?

19. 느부갓네살 왕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지만 본문에서 학문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인재를 데려다가 양성하는 것, 직접 테스트를 하고 결정할 정도(19)

20.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이 다니엘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6:28, 10:1절을 참고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관직에 있었다는 말이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B.C 605)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즉위 원년(B.C 536)까지 70년 간(만 66년,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과 같음)을 관직에 있었다.

21. 1장의 주제는 고난과 회복이다. 백성만 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난을 당한다. 그렇다면 회복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는가? (암시뿐이다)

1:21절이다: 고레스 원년에 큰일을 목격했다는 뜻이다. 포로 귀환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서막을 보았다. 고레스가 즉위하여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대하 36:22-23).

22.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핫티 지역이라고 불린 시리아와 아람 지역을 정복하려는 야욕의 극히 작은 일부분의 일이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시각을 바꾸어서 보면 이런 사건의 배후는 하나님이시다. 본문에서 증거를 세 군데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2, 9, 17).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도 이런 자연스러운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위(位)에 있는 지: 왕이 된 지

환관(宦官長): 궁정에서 일하는 내시, 혹은 시종

고레스 원년: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 (B.C 605)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즉위 원년(B.C 536)까지 70년 간(이스라엘의 포로기간과 같음)을 관직에 있었음

시달: 수메르

다니엘 2장

1.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부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요즈음 흔히 말하는 점쟁이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이들을 현대적 의미로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최고위 지식인들, 혹은 당대의 석학들: 일류 교육을 받고 왕을 섬기게 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들의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13절)

2.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이 말은 "일단 말했다! 같은 말을 두 번 하도록 하지 마라"는 식의 위압적인 표현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에서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왕이 꿈의 내용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꿈을 말하라'는 뜻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직설적으로 '너희는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하라'고 번역하고 있다. 학문과 인재를 존중하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박사나 술객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광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1, 3): 신상 자체도 두려웠는데(31) 그것을 깨끗하게 부숴버린 틀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으니 거대한 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두려움 아니었을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꿈이었던 데다 그 의미를 꼭 알아야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추면 해석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9).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몰라서? 이걸 영어로 옮기면 *Let me know the dream*인데 *Tell me the dream*과 같다. 꿈을 말하라는 뜻이다.

3. 진찰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묻는데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면 자기가 알아내야지!" 이러면서 대답을 않거나 엉뚱하게 대답하면 진단이 잘못 나오게 마련이다. 느부갓네살이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런 심술을 부리는 셈이다. 이에 대한 술객들의 답변은 10-11절이다.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

우리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셔야지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시다. 우리가 어디 신이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4.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자의 빠르기를 설명하면서 개미가 "나보다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한다면 말은 맞다. 그러나 제대로 설명된 것은 아니다. 갈대아 박사들도 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무엇인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11): 하나님을 인간보다 뛰어난 정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이나 감히 도전을 해 보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외에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시다.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20-23).

5. 느부갓네살이 꿈의 해석을 명한 신하들(1) 중에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죽이라는 명령에는 포함되었다. 왜 그럴까?

다니엘은 아직 정식으로 박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수습 기간은 3년이었는데 꿈 사건은 느부갓네살 2년에 된 일이었다.

6.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아직은 외국인 연수생 신분에서 지나지 않는 다니엘이 나서서 왕을 죽일 것이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한을 달라고 한 것일까? 기한을 달라고 청한 것은 꿈의 내용을 알기 때문인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가?

큰 용기와 믿음 때문이다: 다니엘이 아리옥과 느부갓네살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자신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자신이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7.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죽이라는 판에 신나는 사람은? 왜?

아리옥: 다니엘을 만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에게서 해결책이 나온다면 왕의 신임을 더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고... 25절의 '답히', '내가 얻었나이다'는 표현이 그런 기분을 잘 드러낸다.

8.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무엇인가?

왕이 신뢰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다니엘은 그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다(30).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비밀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느냐 재림을 가리키느냐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다른 종말의 본문과 계시록의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림을 가리킨다면

무천년설이 되고(계시록을 주로 영적으로 이해) 재림을 가리킨다면 전천년설이 된다(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9-17번).

9. 이 꿈의 해석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는다면 몇 절일까?

21절과 44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데다. 즉 왕국의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선언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28절의 '후일에 될 일'과 29절, 45절의 '장래 일'은 해석이 아니다. 장래 일을 보이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 21절과 44절이 답이 된다.

10. 전통적으로 첫째 왕국은 바벨론 둘째 왕국은 메데바사 셋째 왕국은 헬라 넷째 왕국은 로마이다. 이 중에서 본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넷째 나라(40-43):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설명이 길고 자세하며 특이하다. 특이한 점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다.

11. 외견상으로 넷째 왕국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철이있다가 철과 진흙(구운 진흙, 질그릇 조각)이 섞인 상태가 됨(33절): 종아리, 발, 발가락은 특이성이 아니다.

12. 해석상으로 넷째 왕국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강한 나라가 나누어져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되는 것: 이 나라는 정복의 시기와 분열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13. 무엇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는가?

인종 때문에: 구소련의 붕괴에서 보듯이 이웃 나라를 강제로 병합해도 끝내는 갈라지는 것이 인종 때문인 것을 보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해두신 장치 아닐까 싶다.

14. 44절의 열왕이란 10왕이 아니라 列王이다. 그러면 이 '열왕'이 앞에 나타난 네 개 나라의 왕을 가리킬까 아니면 분열된 나라들의 왕을 가리킬까?

넷째 나라가 분열된 나라들의 왕: 문맥상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 더구나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21)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많이 분열된 시대에 나타난다.

15. 어떤 사람들은 발가락이 열 개라는 것에 착안하여 유럽공동체가 10개국으로 구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역사의 종말이라고 주장한다.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는 발가락의 개수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해석한다면 두 번째 나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정상인가?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이므로 큰 나라 옆에 조금 작지만 아주 능력 있는 나라가 둘이 있어야 하고 각각 다섯 개의 지방자치 정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석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머리와 가슴 몸통 부분이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나 철과 흙이 섞여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정상적인 머리, 몸통, 팔, 다리, 발가락의 개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발가락 열 개를 유럽공동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7장의 뿔이 10개라는 것에 착안하여 발가락 열 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7장의 열 뿔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피해자로 나타날 뿐이다.

16. 초림의 예수님은 로마시대에 오셨다. 이 때는 로마의 정복시기인가? 분열의 시기인가?

정복의 시기: 로마의 분열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망했는가? 284년경에 로마는 동,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고트족에 함락되고 만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옛 로마의 영토는 회복되고 더 확장된다.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서로마 지역에서는 샤르망 대제가 스스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군림한다. 이 나라가 약화되고 분리된 것이 오늘날의 유럽이다. 또 다른 힘의 한 축은 로마 교황으로 로마시대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다. 본문의 묘사와 비교해 보라. 언제 로마가 망했다고? 42-43절이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분열의 나라를 폐하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17.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나라들과 공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들이 없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대체하는 것이다(35절):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의 나라와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본문과 잘 맞지 않는다.

18. 느부갓네살의 다급한 명령은 다니엘에게도 위기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바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지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해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비록 한 때는 위기였으나 하나님께 매어 탈림으로 결과적으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 계시를 바로 다니엘에게 주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19.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다니엘의 대답(27-28절)과 술객들의 대답(10-11절)을 비교하면 어떤가?
 내용은 거의 같으나 다니엘의 경우는 체험적인 신앙이고 술객들의 대답은 탁상의 이론이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른다. 평생에 찾아 헤매면 겨우 '존재한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리겠지만 감동은 없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쉽고 감격적인데...
20.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에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다(고전 15:10). 다니엘에게서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밀한 계시를 보이시지 않는다. 다니엘은 바울에게 필적할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열심히 있었다. 그럼에도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하였다(30).
21. 아무리 꿈의 해석이지만 왕의 뒤에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왕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런 소리를 해도 반역죄가 되지 않을까? 더구나 마지막에는 절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데?
 다른 경우라면 이권 분명히 반역죄다. 이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가를 보여주는 셈이다. 반역죄는커녕 해몽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22. 삼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없이 바뀌지만(253년간 9왕조, 19왕)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간다(479년간). 한 왕조를 100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끝내 바벨론에 망하고 만다. 영원하리라는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을 보여주는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44) 앞의 네 나라와 이 점에서 대조적이다.
23. 다니엘서는 반쯤은 히브리어, 반쯤은 아람어로 씌어졌다. 어디서부터 아람어로 씌어졌을지 찾아보자. 2장 어디에선가부터 7장 끝까지다.
4절 중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부터: 아람어 외에도 다수의 아카드어, 페르시아어, 세 개의 헬라 단어가 섞여 있다. 이것은 적어도 저자가 페르시아 언어와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 있던 유대인이 썼다는 증거이다.
24. 단 6:8, 6:12의 다리오는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주무르고 있다(12-13. 46). 왜 그럴까?
 나라가 다르다. 다리오는 메테바사의 왕이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다. 저자는 이 두 나라의 법체계나 왕의 권위가 다른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몇 백년 뒤에 다니엘서를 기록했다고 하기보다는 당대에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니엘 3장

1. 다니엘은 왜 빠졌는지 확실한 답을 알 수 없다. 그냥 짐작해 보자.

2:46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기는 따로 신앙을 만들어서 우상 높음을 하더라도 다니엘의 신앙은 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까? 다니엘의 꿈 해석 때문에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럴 수도 있다. 아예 제쳐둔 사람처럼.

혹은 중앙 집권적인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정치적인 쇼라고 본다면 중앙 무대에 있던 다니엘은 참가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기타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공무로 출장을 갔거나, 병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8:27). 요는 언급이 없으므로 추측일 뿐이다.

2. 신상의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이란 말은 높이가 약 30m, 폭이 3m(속리산 법주사의 대불은?)라는 말인데 기형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힘이 있는 사람은 은근히 말도 안 되는 짓을 감행한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중요한 것처럼 우기기도 하고, 길에 돈을 뿌려보기도 하고, 억지로 술을 먹이기도 하고... 남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에서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하여 정복한 나라들과 여러 민족에 대한 통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정치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이다. 꿈에 본 신상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자신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2장의 고백이 입에 발린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들(2, 3)이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4) 백성은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라들이란 바벨론이 단일 국가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통합국가요 각 방언하는 자들이란 다민족 국가임을 보여준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2)'란 표현을 보아서 각 지방의 관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빠진 이유도 이해가 된다. 말하자면 하나의 종교로 일체감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행사인 셈이다.

4. 반포하는 자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명한 것은(4) 국가적 행사에 외국인들이 참가했다는 말인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다. 여러 등급의 여러 민족이 얽혀있는 나라이다. 이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5. 미국에 비한다면 갈대아 사람들은 우월감에 젖은 백인이요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흑인인 셈이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복된 나라 유대의 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못마땅하였을 것이다. 다민족 국가인 바벨론의 주인되는 민족이 갈대아 사람들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낸 상황이었을 것이다.

6. 느부갓네살이 정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갈대아 사람들은 뒤에서 치는 격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때로는 사방에 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결과는 어떨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자.

요령껏 타협한다. 가능하면 피해간다. 굴복한다: 일단은 무사히 지나가겠지만 힘든 날은 또 닥쳐온다.

과감하게 부딪혀 나간다. 예수 믿는 티를 내버린다: 순진적인 고난이 닥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

7.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무척 아꼈던 모양이다. 무슨 증거가 있는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6)는 자신의 말에 권위가 손상당하는데도 그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고 심문을 하는 것,

절대 권력자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것. 전국의 관리들을 다 모은 데서 이 세 사람 때문에 같은 행사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호의이다.

8. 왕의 제안은 상당히 온화한 것이다. 절대 권력자가 양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물러서는 데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가 마주치면 이런 일이 가끔 생겨난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

죽은 신,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과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차이: 죽은 신,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신, 저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다 섬기기도 한다. 가톨릭의 어느 추기경처럼 절에 가서 예불에도 참석하고 스님들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융통성도 있어 보이고 여유가 넘쳐 보인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느부갓네살의 우상에도 절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매사에 대립하면 안 된다. 사탄의 자식일 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할 대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협력하는 자세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없이 인간적이어야 한다.

9.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어디서 드는가?

15절 끝 부분(승히 너희를 내 손에서 견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신을 모든 신보다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다른 나라와 싸우면 그 나라의 신을 정복한 것으로 여겼다.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다신교 사상이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 것이다.

10. 이 세 사람의 신앙이 돋보이는 것은 어떤 점 때문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신앙(=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대적자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28)

11.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신앙적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후자: 전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강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된 후자'는 교묘한 불신앙이다(사 7장의 아하스). 구해주시든 아니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적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다. 믿으면 100% 믿는 것이지 이렇게 회미하나? 구해주시든 아니 구해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믿음이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보다 우선이다.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잘 새겨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후자의 기도를 하고 솔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전자의 기도를 하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12. 7배나 뜨거우면 몇 도나 될까?

문자 그대로 7배란 뜻은 아니다. 가능한 한 최고로 뜨겁게 정도의 의미이다. '최대치'를 나타낼 때 7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창 4:15, 레 26:18, 21, 잠 6:31)

1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태도와 이들을 불에 던진 용사들과 태도를 비교해 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앞에서도 느긋, 왕의 노여움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들을 불에 던진 용사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불에 타 죽는 곳까지 뛰어 들어갔는가?

14.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17)이라고 불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나 중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듯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나면 그 분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15. 풀무 속에 나타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알 수 없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는 견해가 있지만 누구였건 상관이 없다. 분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16. 느부갓네살의 신앙고백을 평가한다면?

놀라기만 했지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놀라운 이적을 본다고 다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17.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방의 압제자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 교육의 한 방편으로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런 주장이 옳지 않은 증거를 지적해 보자. (우리 실력으로 역사적인 문헌을 뒤적일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써보면 본문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위대한 일에 주인공을 빠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 빠졌건 의도적인 작품이라면 주인공을 빼놓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18. 다니엘서의 주제는 1장 끝, 2장 끝, 4:17, 25, 32, 끝, 5:18-23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주제에 3장이 왜 끼어들었을까? (6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 종말에도 성도들이 당하는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19. 맛소라 사본은 단 4:1-3절을 3:31-33절로 장을 구분했다. 공동번역도 그렇게 구분했는데 어느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의논해 보자. 물론 3장과 4장의 내용을 다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장 구분은 편의상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 없다. 내용을 잘 살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찬양이 4:34-37절의 찬양과 더 유사하다. 1인칭 화법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29은 3인칭 화법에서 인용이다)는 점에서 본문처럼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풀무: 용광로인 썸

짐짓: 故意로

고의(袴衣): 여름에 바지대신 입는 홑옷

설만(褻慢)히: 거만하고 무례히

다니엘 4장

1.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다.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벌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근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2. 느부갓네살의 신앙고백(?)은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있었다(3:28-30, 2:47). 다니엘의 꿈 해석, 세 친구의 불굴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30절을 참고하면 통치 말기) 여기서(4:1-3)는 무슨 일로 이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뒤에 기록한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고 왕권을 다시 회복한 일: 그 후에 이 조서를 작성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권세들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함을 널리 알리고자 했을 것이다. (참고로 4:1-3을 3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역본은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다. 내용상으로는 인칭변화를 감안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1-3절이 느부갓네살이 징계에서 회복된 후에 간증하는 셈이라면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느 단어일까?

영원, 대대로: 인간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17, 25, 32)

4. 4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내가: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 정신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4:4을 기준으로 봐도 전후의 느낌이 다르다. 1-3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4절부터 나오는 과거에는 그랬다는 말이다.

5. 2장의 꿈은 어려웠을지 몰라도 4장의 꿈은 해석이 쉬울 것 같은데 왜 바벨론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했을까?

의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왕의 신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을 때는 괜히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감히 무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이 이름은 '내(느부갓네살) 신의 이름을 좇아(8) 지은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좇아 지은 이름은 대체로 '엘' 자가 들어 있다. 사무엘, 이스라엘, 다니엘처럼. 그러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있을까?

벨: 바벨론 신의 이름은 벨이었다.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란 이름이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을까?

7. 다니엘의 능력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다. 왜 성령을 "거룩한 신들의 영(8, 18)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의 표현이다.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은 아는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37절의 '하늘의 왕'도 그렇다.

8. 성경에 '순찰자'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온다. 느부갓네살은 왜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을까?

이교도식의 표현이다: 절에 다니던 사람이 처음 교회 오면 교회 가서 시주한다는 식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불교식 용어로 표현하는 수가 있다.

9. 느부갓네살이 굳이 꿈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순찰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게 된 이유를 순찰자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17): 쿠데타로 권좌를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나 권좌를 빼앗고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네!

인간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의 악함을 일정한 때까지는 그대로 버려두시기도 하신다. 반드시 징벌하신다.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들이 모여서 되는 경우도 있겠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잘못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순종하면서 고치도록 노력한다. 그것이 최종 목표는 결코 아니다. 외면도 잘못은 잘못이다.

10.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런 어려움의 때가 일시적임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는 것(15), 일곱 때를 지나리라(16)

11.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극히 천한 자를 왕위에 올리시는가?

비열하고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의미한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이런 고통을 겪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다.

12.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듣고 놀라 병병하며 번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꿈의 해석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19c). 왕이 하라고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해석을 하기는 해야 한다.
13. 다니엘의 해석을 따르면 나라가 견고하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26).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27).
14.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이 해석을 받아 들였을까? 무시했을까?
 다니엘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니엘의 말을 들은 탓에 어느 정도 미루어졌다는 의미로 들린다. 완벽하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제 버릇 남 주기도 어렵지만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겸손해지기는 더욱 어렵다.
15.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난의 때가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다. 어떻게 고난의 때를 불러들였는가?
바벨론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함으로(30):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이 있었던 곳이다. 자랑할 만한 거대한 성이었다. 다니엘의 권고를 잘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펴이는 것이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까봐서 300명만 데리고 14만이 넘는 군대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16.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마치 소처럼 변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났고 한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정신병: 혼한 기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이리거나, 늑대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아마 예상한 일이었을 것이고 특정한 지역에 소처럼 살 수 있도록 꾸며서 칠년을 지냈을 것이다.
17.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귀인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의 성전기물을 노획하여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병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감사, 찬양, 칭송, 존경: 교만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1-3절과 같은 자세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 영생하시는 자, 자유하시는 자, 인생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자로 이해하였다. 놀라운 변화이다.

권병(權柄, 자루 병): 권세를 쥐고 흔들

다니엘 5장

역사적 배경: 느부갓네살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직후인 B.C. 562년에 죽고 몇 왕(왕하 25:27의 에월트르다, 렘 39:3의 네르갈사레셀과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дук)이 단명으로 물러나고 B.C. 556에 나보니두스가 등극하여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B.C. 539년까지 다스렸다. 본문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온 것에 대하여 오랫동안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 일반 역사에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기에 바벨론이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그가 왕권을 아들에게 위임해 놓고 여행(전쟁?)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성경의 신빙성이 의심을 받아왔지만 땅속에서 돌들이 소리를 질러 이런 비난을 잠재워버렸다.

일반 역사에 전혀 기록이 없던 이런 사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벨론과 페르샤의 역사에 대해서 저자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벨사살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23) 성전기명을 가지고 우상을 찬양하는 행위, 왜 그랬을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대한 반발 아닐까? 어설피게 교회 다니던 사람이 반항을 시작하면 믿지 않던 사람보다 도가 더 심해진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도 기존의 종교정책들을 무시하여 이교의 제사장들조차 반발했다.

2. 벨사살이 초대한 귀인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사람은?

다니엘: 우리의 주인공이고 느부갓네살의 의하여 중용된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핵심 멤버는 아니란 사실이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이기도 하다.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3. 에스더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왕의 잔치와 비교하면 벨사살의 술잔치는 문제가 있다.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현상이 무엇인가?

왕의 술잔치에 왕후와 빈궁들이 참석하는 예는 거의 없다. 동부인해서 술집 가는 남자들이 없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에스더서의 왕후 와스디는 잔치에 오라는 왕의 명령조차 거부하다가 폐위되지 않았던가! 동부인해서 술집을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적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뜻이다.

4. 우리로서는 다음 구절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점이?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5:4)

신을 찬양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정중한 자세로 해야지...

신을 만들다니...

이왕에 만든다면 금으로 해야지, 어느 신은 금으로 어느 신은 은으로? 동, 철, 목, 석은 뭐야? 신들끼리 싸움 붙이려나?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질내거나 화낼 신이 없으니 말이다. 그 앞에서 성전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5. 벨사살이 얼마나 놀랐는가?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6) 아마 느부갓네살이 겪은 고난이 생각났거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고레스가 생각났을지도 모른다. 명색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허약한가? 허세를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꺾이면 바람 빠진 풍선 꼴이다.

분벽: 석회를 바른 벽

6. 분벽에 씌어진 두려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옷과 금사슬을 상으로 주겠단다. 상을 주려면 좀 더 나은 것은 없었을까?

자주옷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왕의 옷이고 금사슬도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목둘레 장식이다. 치리자로 삼겠단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로마병정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로마병정들이 입힌 옷이 흉포(빛난 옷)인 것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왕의 복장을 입힌다고 그랬다.

7. 왜 세 번째 치리자인가? 둘째로 삼지 않고.

자신이 두 번째 치리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섭정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2절의 부친은 선왕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외조부일 수도 있다.

8.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늙은 충신들의 충고보다는 같은 연배의 젊은이의 열기 넘치는 충고에 귀 기울이다가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았다. 벨사살에게서 그런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데 다니엘도 몰라? 아버지 곁에 있던 원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젊은 후계자가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와 같다. 태후가 보는 다니엘(10-12: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파 벨사살이 보는 다니엘(13-16: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을 비교해 보라.

9. 느부갓네살의 두 개의 꿈과 벨사살의 사건에서 다니엘과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보자.

항상 다니엘이 현장에 없다가 다른 박사나 술객들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뒤늦게 등장하여 깨끗하게 해결한다. 실력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기회는 먼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외에 '하나님을 만드시 높이고 해석함'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 등의 답변도 가능할 것이다.

10. 태후는 사람을 볼 줄 알았던 모양이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고 이 태후의 말을 들었다면 어느 말이 가장 고마워했을까?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부른 점: 벨사살이 왕으로 있으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본래 이름으로 불러주었을까? 명예롭지 못한 벨드사살이란 이름 대신 말이다. 이 일 이후 다니엘은 더 이상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란 표현도 자신을 높이거나 능력을 인정해주는 표현이라서 가능성은 있지만...

11.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예물과 상금을 사양했다. 왜 그랬을까?

상금은커녕 목숨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 다음 해석의 내용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았음을 알고도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18-28)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사양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말이다.

12. 다니엘의 해석 내용은 간단하다. 단지 서론이 좀 길뿐이다. 긴 서론의 요지는 무엇인가?

부친의 일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부친이 교만하게 굴다가 혼이 났음을 알지 못하느냐?

13.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된 방법은 무엇이었다고 하는가?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낮아져서: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는 식인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교만이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돌아서는 것이 인간인데 그에 비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렘 4:12)는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

14. 벨사살이 다른 왕보다 더 징벌을 받은 셈이다. 특별히 그대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함: 사람이 아는 것만 실천해도 성인군자가 될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벨사살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22절의 '알고, 23절의 '거역') 부왕의 이야기에 고의적으로 반발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런 죄를 가리켜 '성령 훼방죄'라고 하셨다. 똑같지는 않지만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5.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숭배케 하는 행위 일뿐이다. 필경 자신은 이런 신들의 아들이거나 현현이라고 여겼을 테니까.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바로 그 신의 대리인이거나 산 자체라고 주장한다. 누가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하였는가? 진짜 신을 모신 사람만이 남는 것 없는 장사를 할 수 있다. 수익은 그 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16. 벽에 씌어진 글자는 일상적인 아랍어였다. 읽을 수 있는 글자였으나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다음 단어의 뜻은 무엇이며 다니엘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메네: 세어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 달려서: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다.

우바르신: 나누어지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17. 다니엘이 문자를 해석할 때 이상한 점은 무엇인가?

우바르신의 해석이 없고, 베레스란 엉뚱한 말을 해석했다: '우바르신'은 '베레스'의 단수 수동태 분사형이란단. 베레스는 '주다'이고 우바르신은 '주어졌다'는 뜻이 된다. 아무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접두사 '우'를 떼고 자음을 비교하면 '브르'로 같다. 같은 자음에 모음만 다르게 붙임으로 변화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의 기본동사 '카탈'은 '크트르'라는 자음 세 개로 된 단어인데 여기에 다양한 모음을 붙여서 '익탈' '크탈렘' '크탈' '코탈' '익카탈' '닉탈' '이카탈' '히트카탈'... 로 변화하는 데 200개 가까운 변화가 있다.

18. 비록 하나님도 모르는 철없는 벨사살이었지만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멋지다. 다니엘을 처형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다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19. 메대와 바사는 연합군이였다. 역사책에는 무슨 이름으로 나오는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아래 역사적 배경 참조)

20. 바벨론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이였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벨사살은 공격하겠거든 해보라는 식으로 잔치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점령 당해버렸다. 고레스가 어떤 방법으로 무혈점령에 성공했을까? 참고로 바벨론 성의 한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었다.

바벨론 성 가운데로 운하가 흐르고 있었다. 상류에서 독을 터뜨려 물줄기를 돌려버리고 낮아진 강바닥으로 걸어서 들어왔는데 경비병들마저 술에 취해 있었단다.

21. 느닷없이 등장한 다리오의 정체는 무엇일까? 다음 역사에서 가능성을 찾아보자.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바벨론을 치기 전에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 바사에게 동맹을 청했다. 바사의 고레스가 거절하자(BC 550) 먼저 바사를 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대의 장군인 하르파거스가 왕에게 반감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다. 아스티아게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바사로 진군했으나 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체포해서 고레스에게 넘겨주고 말했다. 고레스는 자기 품에 찾아온 메대의 군사들을 이끌고 메대 지역과 주변 전지역을 접수해 버렸다. 바사의 고레스는 메대의 군사를 지휘하여 강둑을 파괴하여 물길을 돌려버리고 강바닥을 통해서 하루 밤 사이에 끈고한 바벨론을 점령한다(BC 539년 10월). 그럼에도 단 5:30-6:2에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한다.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는 같은 시대이다(6:28).

(다리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다리오 왕은 점령군의 주역인 메대의 군사령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메대의 장군으로 처음에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린 하르파거스일 것이다. 고레스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바벨론 지역의 통치를 맡았을 것이다. 반면에 다리오가 고레스와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고레스는 바사 이름이고, 다리오는 메데식 이름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사람이라 해도 분신처럼 통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 배경: 바벨론이 강성하던 시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는 메디아였다. 메디아는 2대에 걸쳐 군비를 정비하여 바벨론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남쪽의 작은 나라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함께 바벨론을 치자고 제의했다. 고레스는 사전에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있던 차라 메디아의 요청을 거부했다.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분노하여 바사를 정복하도록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이끌고 간 하르파거스 장군이 변심하여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다. 메대 왕이 직접 출정하였지만 또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을 체포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해 버렸다. 고레스는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나라를 통째로 얻고 메대의 군사와 작전대로 바벨론으로 진격한다. 도중의 작은 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버렸다. 바벨론은 워낙 강한 성이었기에 메대, 바사의 군대가 포위를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 마침 나보니두스 왕이 돌아와서 신년 축제를 벌이고 있던 때였다. 밤중에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의 독을 터뜨리고 물길을 돌리자 바벨론 성의 가운데로 흐르는 운하의 하상이 무릎에 할 정도로 낮아져서 고레스의 군사는 운하를 따라서 무혈점령에 성공하였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관리들을 그대로 앉히고, 유화정책을 폈으며 자신의 군대가 정복민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했다. 정복한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였고, 바벨론 포로민들이 원거주지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44-45장).

다니엘 6장

1.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단다. 사업상 비리는 비리가 아니고 사업수단일 뿐이다. 그러다가 과거의 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위법으로 단죄되면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것을 거부하고 제대로 회사를 운영한 크리스천이 있다. 이랜드라는 회사가 그렇다던데, 다니엘은 어떤가?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6:4).

2.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다니엘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3.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저 놈은 예수 믿는 것만 빼고는 다 좋다'는 것 아닐까? 다니엘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인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5) 신앙도 인격도 능력도 다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다. 의외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 신앙을 핑계로 직장에서 무능하다고 찍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순교자의 각오로 직장과 일에 충성해야 한다. 무리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워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4. 인질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지만 정말 출세했다. 자기 밑에 도지사가 몇 명인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120명 위에 총리가 셋이니까 아마 40명 정도. 그러다가 또 진급을 시키려니까 도전을 받게 됨. 너무 능력이 출중해도 문제가 된다. 그럴수록 대인관계에 더 신경을 쓰자. 사랑을 베풀자. 겸손해 지자.

5.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금령을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한 말 중에 왕을 속인 것은 무엇일까?

나라의 모든 총리(7) 적어도 다니엘은 아니다. 이 놈들이 수석 총리에게 물을 먹여?

6. '만세수를 하옵소서'를 두 글자로 줄이면?

만세! 만세란 말이 만년이나 사십시오란 뜻이다.

7. 다리오 왕에게 하는 건의는 왕이 듣기에는 솔깃하다. 즉 자신을 신으로 받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알고 보니 왕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특별한 의도를 숨긴 칭찬이나 아부는 대단히 위험하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하면 사기 당할 가능성이 높다.

8. 전에도 신상을 만들어 절하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왕은 왜 또 속아 넘어가는가?

1) 나라가 다르다. 2) 사람은 띄워 주면 자만에 빠져 사리 판단을 흐려진다.

9. 다니엘이 이런 시련에 빠지지 않으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자.

- 1) 계획 단계에서 저지시킬 수 없었을까?
- 2) 열린 창을 닫으면
- 3) 하루 세 번의 횃수를 줄이고 어두운 밤에
- 4) 기도하는 자세를 바꿀 수도
- 5) 30일 동안만 쉴 수도 있다.
- 6) 공직에서 사퇴.

10. 이런 시험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있는데도 다니엘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답답한 사람 아닌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공공이를 다 부려도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자세이니까 사전에 계획을 저지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1. 10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행동은 정말 이상한 행동이다.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외에 이상한 것을 하나 더 찾아보자.

감사하였더라(10c) 도대체 뭇이라고 감사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질 위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감사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12.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 아니, 최소한 어떤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13. 다니엘은 적어도 이 나라의 2인자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리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부

르는가?

1) 사로 잡혀온 2) 유다 자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지자의 현재 모습보다 과거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간신들이 하는 짓은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14. 다리오가 딜레마에 빠졌다. 자기가 만든 규례 때문에 해질 때까지 스스로 고민하고, 다니엘을 던져 놓으면서 무사함을 빌고, 잡도 자지 않고 다니엘을 염려하고... 이런 딜레마가 어디서 생겼는가?

- 1) 간신들의 악함
- 2) 자신의 자만심
- 3) 다니엘의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

15. 이 장에서 깨어지는 것이나 일그러지는 것은?

간신배들,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8, 12):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주교의 교황무오설도 마찬가지다. 갈릴레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임을 알았지만 무오한 교황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어서 수 백 년간 잘못했음을 뻔히 알면서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16.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라고 하면서 하는 다리오의 말은 무엇인가?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16, 20):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왕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는 왕의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다.

17.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함이었더라 (6:23)

의뢰

18. 다리오는 자신의 뜻대로 법을 바꿀 수 없다(8, 12, 15).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2:10-12).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바벨론의 법과 메대 바사의 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왕권의 세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은 그 시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야 가능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저자를 몇 백 년 후의 이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좋은 반박이다.

다니엘 7장

1.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증거가 본문에 있는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1절): 6장에서 다리오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더니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간다. 즉 사건들을 기록한 후에 시대 중간 중간에 받았던 이상을 다시 정돈하는 셈이다.

2. 고대 강국의 역사는 아카드 왕국 수메르 부활 바빌로니아(아카드의 후예, 고바빌로니아라 부른다) 앗시리아(앗수르) (신)바빌로니아(바벨론) 페르시아(바사-매대와 동맹국) 헬라 로마로 이어졌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본 것은 네 나라다. 어느 나라부터 시작인가?

바벨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은 (신)바빌로니아의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앗시리아는 다니엘의 시대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하나를 구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조선이라면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면 두 번째 바벨론을 일컫는다.

3. 2장에서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7장에서는 이 나라들(짐승들)이 비정상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암시가 어디에 있는가?

바람에 의해서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정상이라면 짐승은 숲에서 나와야 한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면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법이고 고기가 떠밀려 나와야 정상이다.

4. 나라를 짐승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야, 이 짐승아!' 어떨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대항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18). 이 짐승들이 갈빗대를 물었고, 고기를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다(5, 19).

5. 네 생물을 정리해 보자.

1)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날개가 뽕핌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섬 사람의 마음을 받았음

2) 곰 몸 한편을 들었고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음

3) 새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고 권세를 받은 표범

4) 큰 철 이와 열 뿔이 있는 짐승(숫 발톱 19절):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달라서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함 열 뿔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뽕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참람한 말: 가령, 내보다 센 놈 있으면 나와 봐)을 하였음

6. 첫째 짐승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면 '날개가 뽕힌 것'과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의 의미를 4장에서 찾아보자.

날개가 뽕힌 것: 느부갓네살이 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은 것(4:33)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 그에게 총명이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4:34)

7. 이 네 생물이 각각 나라를 가리킨다면 어느 생물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가장 쉬운 특징을 찾아서 설명해 보자.

셋째 생물이 가장 쉽다: 헬라(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하고 일찍 죽었다(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 그 후에 나라는 마케도니아(카산더), 트라케-소아시아(리시마커스), 시리아-메소포타미아(안티고너스), 이집트(플레미)로 네 조각이 났다.

8.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름이 없다: 다른 짐승보다 더 짐승이다. 계시록에서도 짐승이라고 불리는 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설명은 고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진짜 짐승이란 뜻이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7절)

더 난폭하다: 철 이빨로 닥치는 대로 먹는다

뿔들이 있다: 10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10왕이다(24절). 이 열 뿔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더니, 먼저 있던 뿔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뽕아 버린다(8절)

9. 넷째 짐승이 가리키는 나라의 특징이 2장에서는 정복의 시기와 분열의 시기가 있다고 했다. 그것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복의 시기: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7),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23).

분열의 시기: 열 뿔과 작은 뿔,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24)

10. 열 뿔 사이에서 나타난 작은 뿔은 역할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24-25)고 한다. 이 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

적그리스도: 10개 중에 3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 나라들의 정도를 정복하는 것을 말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며(21)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것이다.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2:21) 때문이다. 때는 나라를 세우는 것과 폐하는 것을 뜻하고 법은 심판에 관한 원칙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항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적그리스도가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

11.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환난을 허용하셨지만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무리 짐승이 설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생각나는가?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

음: 음이 받은 복이 바로 고난을 이긴 성도가 받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복 말이다.

1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세 번 나온다(9, 13, 22) 세 번 다 동일한 분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살펴보자.

앞의 두 번은 성부 하나님이 틀림없다.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로 뒤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도 다 같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불릴 수 있다.

13.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혹은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 적그리스도의 등장?

(작은 불이 성도들을 이기겠지만)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22절): 다니엘은 유대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더 크고 위대한 나라였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던 바울이 마침내 감탄하고 감격하던 장면과 흡사하다(롬 9-11장).

14. 2장에서는 신상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뜨인 풀이라고만 묘사하더니 여기서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 놓였더라'(9-10)고 한다. 이런 모습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심판: 왕이 앉는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뜻이다.

15. 넷째 짐승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죽임을 당한다. 다른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지만 그 때까지 목숨은 부지하고 있다: 언제 권세를 빼앗겼을까? 넷째 짐승의 심판 때가 아니라 각 짐승이 순차적으로 등장할 때 권세를 잃은 것이다.

16. 왕좌가 놓인 거야 다니엘이 왕궁에서 높은 곳에 있었으니 쉽게 알아보았겠지만 옛적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소위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것처럼 환상 속에서는 마치 자신이 전능한 자가 되어 알 수 있는 것이다. 묵시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17.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앞의 짐승들의 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것, 영원할 것: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14)

18. 이 환상의 해석에서 요점은 무엇인가?

7:17-18: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19. 열 개의 불이 열 개의 나라를 가리킨다면 이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가?

나중에 나오는 한 개의 불이 적그리스도이다. 열 불은 적그리스도의 피해자일 뿐이다.

20. 2-6장의 주제는 세상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국들을 흥하게도 하고 폐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주제였다. 7-12장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 주제다. 짐승으로 묘사된 왕국들의 세력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7장부터 _____가 등장하여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설치고 다닌다.

적그리스도

다니엘 8장

1.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이다. 그가 엘람도 수산성에 있을 때 아래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 수산이란 지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에스더이다. 예 1:1-3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

수산성은 에스더서의 배경인 메데 바사, 즉 적국의 수도이다. 메데 바사는 얼마 후에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점령한 적국이다. 아마 외교적인 문제로 파견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다니엘이 점령된 이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미 메데 바사와 깊은 교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2. 이 환상에는 특이하게도 해석이 달려 있다. 환상의 내용과 해석이 각각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내용: 3-14

해석: 15-26

3. 상징이 지니는 의미는 특이한 현상에 있다. 가령 수양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이나 수양이 강가에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가?

두 뿔의 길이가 다르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뿔이 각각 따로 나는 것이 이상하고 길이가 다른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수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수양을 이길 짐승이 없나?

4.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라고 한다(20절). 그러면 위에서 정리한 특이점이 메대 바사의 어떤 왕이나 성격을 가리키는가?

두 뿔의 길이가 다르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먼저 난 뿔은 메대 왕이요 뒤에 난 뿔은 바사(페르시아) 왕을 상징한다(20). 메데는 B.C. 612년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멸할 때 도움을 줄 정도로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때에 페르시아는 작은 부족국가였다. 나중에 메데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바사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부하들의 반란으로 바사에 나라를 넘겨주고 말았다. 확실히 먼저 난 뿔이었다.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는 것은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여 강대해지는 모습을 말한다(4).

수양을 당할 자가 없었다: 당할 나라가 없다. 메대 바사의 연합국을 가리킨다.

5. 수양이 설치하는 방향 중에 빠진 것은 어느 방향이며 왜 그럴까?

메대 바사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쪽(메데에서)과 북쪽(바사에서)으로는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가 있다. 동쪽으로는 인도가 있지만 그리 중요한 전쟁은 없었다.

6. 바사의 고레스는 큰 세력을 너무나 쉽게 얻는다. 함께 바벨론을 치자는 메데의 제안을 거절하자 배후에 있는 바사를 먼저 치려고 메데의 군사가 출전하지만 고레스에게 투항해버렸다. 왕이 직접 나섰지만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고레스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쳤다. 고레스는 메데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 곳마다 해방자로 환영을 받았다. 견고한 바벨론마저 무혈로 점령해버렸다. 이런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도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빰장을 펴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사 45:1-3)고 하였다. 본문에서 이런 고레스에 대해서 무엇이 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수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결국 페르시아는 가장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된다.

7. 아무리 다니엘이지만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 의미를 저절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아는가?

생각함(5), 알고자 함(15): 노력일 뿐이지 그래서 아는 것은 아니다.

깨닫게 함(16), 알게 함(19):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8. 양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염소를 따를 수는 없다. 본래 양은 얌전하고 순한 짐승이지만 염소는 험한 곳을 뛰어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이 수염소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서쪽에서 온다: 마케도니아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본다면 서쪽이다(21).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헬라의 군대는 그 이전의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넓은 지역을 정복하였다.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알렉산더는 정말 특출한 왕이었다. 20살에 왕이 되어 빠른 속

도로 페르시아를 점령해버렸다. 무리한 속도가 화를 자초하기도 하지만.

양에게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서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군대는 세 번에 걸친 대전(그라니쿠스, 이수스, 가우가멜라)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펴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은 초대 왕으로 정복사업을 완성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자 그의 사후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22).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쪼개진 네 나라 중에서 안티고너스 휘하에 있던 셀루커스 장군이 쫓겨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툴레미의 힘을 이용하여 다시 나라를 차지한다. 그의 후손 중에서 악독하기로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에피파네스 B.C. 175-164)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에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

애굽을 치러 갔다가 뜻을 이루진 못한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를 금하고, 성전 뜰에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기물에 뿌렸다. 유대종교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유대인의 규례를 폐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극히 부패하여 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메넬라우스는 헬라왕의 편이 되어 자기 백성을 괴롭혔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앞잡이가 되어 유대종교를 행하는 사람을 고발하여 박해하고 죽였다. 이 때 모딘이라는 작은 동네의 제사장 맛다디아스가 헬라 신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유대인 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 이들이 마카비인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헬라군대와 싸웠다. 164년 12월에 마카비인들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여 제사가 재개되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을 만큼 안티오쿠스의 만행에 대한 언급이다(24).

9. 작은 뿔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는가?

남편(이집트), 동편(메소포타미아), 영화로운 땅(유대 땅, 남편에 포함되어야겠지만 따로 구분하였음): 시리아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10. 작은 뿔이 어느 정도로 자라는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별을 떨어뜨릴 정도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할 정도로: 하늘 군대란 별을 가리키고 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하늘 군대의 주제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느 정도의 횡포를 부렸는지 마카비상에 잘 나타나 있다. 핵심은 유대종교를 버리고 헬라화 시키는 것이었으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고통이었고 변태행위였다. 이것이 결국은 마카비 형제들에 의한 독립전쟁을 촉발하여 하스몬 왕조가 태어난다.

11. 작은 뿔의 횡포가 얼마만큼 계속되는가?

2300주야: 공동번역은 '아침과 저녁이 2300번 바뀌어야'라고 번역하고 있다. 아마 주야를 따로 계산해서 2300인 듯하다. 그러면 1150일이 되는데 이것은 3년 조금 넘는 기간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져서 마카비인들이 다시 회복할 때(B.C 165년까지의 기간은 3년 10일로 조금 모자란다.

2300일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B.C. 168. 12. 15에 성전 모독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B.C. 171년에 경건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직무를 박탈당하고 동생이 많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다. 이듬해 다른 동생인 메넬라우스가 더 많은 뇌물을 약속하고 야손을 계승한다. 뇌물을 바치려고 성전의 황금기물을 가져다 팔았다가 그것을 책망하는 오니아스 3세를 암살했다. 이에 따른 유대인의 분노가 안티오쿠스의 반유대주의적 핍박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

12. 천사가 계시를 전하는 순간에 잠이 들다니(18)?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야?

의식을 잃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 2:21)

13. 단 7장과 8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작은 뿔이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작은 뿔이지만 둘 다 자라며 강성해져서 세상을 정복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종교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14. 단 7장과 8장의 작은 뿔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7장의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로마)에서 나타나고, 8장에서는 둘째 짐승(헬라)에게서 나타난다. 로마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다. 헬라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안티오쿠스 4세였다.

7장의 작은 뿔은 열뿔 사이에서 나왔지만 8장의 뿔은 네 뿔 중에서 나왔다. 이것은 헬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안티고너스가 차지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시리아 왕국을 나중에 차지하게 된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임이 틀림없다. 명백하게 다

른 인물이면서 한편으로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표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15.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나 본토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다시 짓밟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예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징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될 것이다.

끝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

16. 이 이상은 '끝에 관한 것'(17, 19), '여러 날 후의 일'(26)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끝인가? 세상의 끝인가?

이 환상의 핵심은 작은 뿔에 있고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데 이는 말세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결국 이 끝은 세상의 끝에 초점이 있다고 해야겠다. 단 12:4의 끝도 마찬가지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7. 헬라가 넷으로 나누어진 후에 악독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왕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패역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23).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가중된 것도 뇌물을 써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금을 훔쳐다 바치는 그릇된 지도자들의 탓도 적지 않다.

18.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실제로 기만전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도 그렇고 애굽과 싸우는 전투도 그랬다. 그의 이런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인가?

궤홀(23, 25), 궤를 베풀어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25) 우리말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임'이란 뜻이고 원어는 '왜곡되고 타락한 것'이란 뜻이다.

19. 악한 왕이 권세가 강하여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누구의 힘인가?

일차적으로는 사단의 짓이다(계 13:2).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의 묵인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20. 본문의 악한 왕은 명백하게 안티오쿠스를 가리킨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가령, '강할 것',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강한 자들... 을 치리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이지만 애굽이나 로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안티오쿠스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적그리스도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안티오쿠스는 그림자요 실체는 적그리스도이다. 안티오쿠스에게 부분적으로(이스라엘에게) 실현된 것이 적그리스도에게는 더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21.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안티오쿠스도 말년에는 금과 은이 많다는 페르시아의 엘리마이스를 점령하려다가 쫓겨났다. 유다에 진격했던 군대가 패배했고,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운 제우스 상을 부서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병상에 눕고 말았다. 유다에 행한 자신의 만행을 후회하며 이국땅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다(마카비서 6:1-16). 이 사실을 본문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25c).

22. 원문의 2: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나머지 부분(1, 8-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다른 책을 붙여 놓았을까? 아니면 한 사람이 기록하면서 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까?

주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람어로 기록한 내용은 이방인의 세계에 관한 것이라면 히브리어로 기록한 부분은 유대인의 세계를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니엘 9장

1. 갈대아란 바벨론이 있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갈대아 나라란 국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나라라는 뜻이다.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이다(5:31)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은 고레스다. 그런데 왜 메대(메디아) 쪽속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하는가(6장 참고)?

고레스는 메디아의 군사와 물자를 거저 얻어서 공짜로 바벨론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 연합군이긴 실제로는 메디아 군사요, 전략이었다. 그러므로 고레스가 메디아(메데) 쪽속인 다리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다리오는 2년간 통치한 후에 죽는다. 이로써 메디아는 완전히 사라진다. 본문의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아하수세로가 아니다.

2. 다리오 원년이라면 다리오 왕에게도 바쁘게 해였겠지만 다니엘에게도 대단히 바쁘게 해였다. 그렇게 바쁘고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6장)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쉬지 않고 계속한 것이 또 하나 있음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일까?

선지자(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것: 렘 25:11-12, 29:10을 읽고 깨달은 것이다. 하필 그 해에 그 본문을 읽고 있었다기보다는 평소에 읽고 있었는데 마침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3. 다니엘이 이 글을 읽던 다리오 원년은 B.C. 538년이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해는 B.C. 586년이다. 그러니까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7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를 기준으로 70년 후의 일을 예언했다.

4.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된 것을 깨닫고 기도했다. 다 됐는데 왜 기도하나? 멀었을 때 해야지?

깨달았을 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2-13)

5. 다니엘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인가? 참고로,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20절이다.

죄사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민족의 죄를 자복(5-15)하며 기도하지만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다(19). 20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죄를 자복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고, 두려워할, 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4)

7. 기도하는 다니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 26:14-45, 신 28:15-66일 것이다. 이 구절들을 다니엘은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명세)(11, 13)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였다. 다니엘은 성경 읽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은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서에서였고 기도 가운데서 인용하는 성경은 신명기와 레위기이다.

8.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이유를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범죄(5, 7, 8, 11, 15, 16)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함(=율법을 행치 아니함 6, 10, 11, 14)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곧 범죄이다. 패역함(9)이나, 회개 않고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함(13)도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9.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징계가 너무나 엄청난 것임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다. 무엇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시도록 기도하는가?

주의 긍휼(18)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19)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10. 다니엘의 기도예 대한 응답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70이레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24절) 지금은 아니란 뜻이다. 24절은 요약이고 25-27은 구체적인 설명인 셈이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과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임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다. 24절의 기름부음 받은 자가 초림의 메시아 같으나 그 전에 70이레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초림이 아니라 재림일 수도 있다.

11. 지혜롭고 총명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일이다(22).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팡이로 나를 탁 치니까 그 다음날부터 한번 본 것은 결코 잊어지지 않으며 저절로 성경 말씀이

다 기억나고... 그런 것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까?

생각하고 깨달으란다(23).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면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12. 죄악이 영속되며?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다. 문맥을 살펴야 오해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 영원히 계속?

영원히 속하여 진다(永贖).

13. 다니엘 9장에서 70이레의 의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많은 부분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준다. 고려신학대학원(천안 소재) 한정근 교수의 저서 '종말론 강해'(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일독을 권함)를 교재로 삼아 다음과 같이 풀어보기로 한다(13-16번). 포로기간 70년이 무슨 의미인지 대하 36:21-23을 찾아보자.

안식년을 뜻한다: 토지도 안식의 대상이다(레 25:3) 만약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강제로라도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레 26:34-35, 43)고 말씀하셨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기록하였다. 그들은 레위기의 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포로기간 70년을 안식년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레 26:44-45)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14. 70이레는 70의 일곱 번 즉 7×70이다. 포로기간 70년의 의미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490년이라는 의미보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70이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다. 포로와 종이 돌아오는 해이다. 다니엘은 안식년이 지났으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안식년을 7번 지나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대답을 하셨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따라서 70년 만에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환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른 회복, 더 큰 회복을 말씀하셨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작은 회복 대신 희년이라는 더 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15. 70이레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은 69이레를 483년으로 보고 B.C. 538년에 고레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한 때(스 1:1-3)부터 예수의 초림, 혹은 죽음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을 25-27에 근거하여 찾아보자.

70이레는 연속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24절에는 종합적으로 말하면서 70이레하고 했으나 25-27에서는 셋으로 구분하여 7이레, 62이레, 또 1이레(25-27)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각기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기간이 있을 것임을 말한다. 임의로 7이레와 62이레를 구분하지 않고 69이레라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도 그런 경향이 있다.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483년의 끝을 예수님의 죽음에 맞추려는 시도였다. 기간도 차이가 적지 않게 난다. 공동번역은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 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칠 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육십 이 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 동안에 성을 쌓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기간을 분리하고 있다(RSV도 동일함). 결국 초림에 맞추려는 노력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 세 기간을 연속된 것이라기보다는 분리된 세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두 가지 회복을 말씀하셨다. 세 명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는 고레스(25,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초림의 예수(26, 제물이 된 메시아), 재림의 예수(24, 심판자로서 메시아)라고 볼 수 있다. 2장과 7장에서 본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6. 62이레와 마지막 1이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예수님의 죽음당함을 가리킨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함: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성과 성전이 훼파될 것을 가리킨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포로생활이 70년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란 것이다. 일단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70이레(70이 7번)를 지나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7이레와 62이레를 지나도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62이레 이후 마지막 한 이레와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17. 27절의 '그'는 누구인가?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 구절을 인용한 마 24:15-16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음 두 견해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자.

1)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는 예수께서 언약을 확증한다는 의미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신 것이다. '미운 물건'은 예수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뒤에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거행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이다.

2) 26절에 나타난 왕과 대등한 성격의 소유자(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유희정책을 편다. 한 이레의 절반쯤에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성을 황폐케 할 것이다. '미운 물건'은 우상을 말한다(단 11:31, 12:11). '알개를 의지하고 신다'는 것은 세력을 근거로 우상을 세운다는 뜻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26절에서 메시야는 끊어져 없어졌다는 말과 상충된다. 27절의 내용이 시기상으로는 26절 앞에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면 다니엘이 '회복'을 바란 기도의 대답이 '황폐'로 끝나버린다. 무리함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70이레의 내용을 예수의 초림으로 보려는 선입견 탓이다. 만약 예수께서 폐하신 성전제사를 유대인들이 계속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산으로 도피했는가? 오히려 제자들은 계속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다(행 3장, 21:17-26).

동일한 구절을 두고 해석이 완전하게 다를 때는 의미가 분명한 다른 구절을 참고해야 한다. 27절의 어구는 단 8:11-13, 11:31-32(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주피터 우상을 세운 것), 단 12:11(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도 나타나는데 8장의 안티오쿠스는 7장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고, 11장의 안티오쿠스는 12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표상이다.

앞에 나타난 왕을 가리키는 듯하면서 같은 성격의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비슷한 예를 단 11:36에서 볼 수 있다. 11장의 '이 왕'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그와 거의 같은 성격의 소유자면서 다른 적그리스도이다.

18. 다니엘이 기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일단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회복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다. 다니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다. 회복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횡포를 부릴 것이다. 얼마 동안?

한 이레의 절반(27) 이 본문만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환난을 일으키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다. 단 7:25, 12:7(한 때 두 때 반 때), 계 11:2, 12:6, 12:14, 13:5

결국 70이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어떤 역사적인 틀에 끼어맞추기보다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징적인 기간의 불완전한 회복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이다.

- 7이레: 바벨론 포로에서 겪는 이스라엘의 고난,
- 62이레: 전쟁(성과 해자)으로 인한 고난의 기간,
- 1이레: 적그리스도로부터의 고난

다니엘 10장

1. 다니엘의 재임기간은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21). 그러면 이제는 물러났거나 한직이나 고문 자리에 있었던 모양이다. 10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다.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 그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는?

전쟁, 말일에 백성이 당할 일(오래 후의 일)(1, 14)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다. 큰 압제나 고난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2. 70년간 고위직에 머물렀던 다니엘이다. 은퇴하고 형편이 어려워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아니다. 정월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일은 무교절이란 유대 최대의 명절이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2-3절은 이상을 다 보고 깨달은 후의 일일까? 아니면 이상을 보기 전의 모습일까? 이상을 깨달은 후라면 이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난 때문에 슬펐을 것이고 깨닫기 전이라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영이 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았고, 일부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다는 답답한 소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에스라 참조).

12절을 보면 깨닫기 이전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완전한 금식을 아니었지만...

3. 5-6절이 묘사하는 사람과 가장 흡사한 사람은 누구일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계 1:13-16, 겔 1:26-28). 학자들의 견해도 천사와 예수라는 것으로 갈리는 모양이다.

4. 다니엘이 본 이상은 환상 여행인가 아니면 실제상황인가?

실제상황이다(?) 이상을 보지는 못하면서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는 점에서 환상관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 아닐까? 비슷한 현상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을 때(행 9:3-7)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왕하 6:16-20), 발람과 나귀(민 22:23-31)에서 볼 수 있다.

5. 이상을 보면서 왜 힘이 빠지나? 나의 아름다운 빛이 왜 썩을 듯한가?

요한도 위엄에 가득 찬 예수를 만나자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한다(계 1:17).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힘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힘과 아름다움이 오히려 추하다. 우리 힘이란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 권력을 뽐내던 번사또가 압행어사 앞에 선 꼴에 비교한다면 태도 없는 일이겠지만 상상하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6. 11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최초의 말이 아니다. 이상 중에서 다니엘이 들은 최초의 말은 무엇인가?

알 수 없다(6, 8절) 너무 놀라서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이 있음에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다니엘이 들은 말은 다 알아듣지 못하였어도 상관이 없다.

7.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기절해 버린 다니엘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꿇어앉을 정도로만 힘을 회복시켰던 모양이다. 나머지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떨면서도!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 주고 힘을 주지만 결코 로봇이나 죽은 짐승처럼 다루지 않는다. 부족한 힘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신다. 일어서라(꼭바로 서라는 뜻이다)고 하신다. 결국 다니엘은 떨며 일어서지만 정신이 병병하였다(15). 말하는 것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8.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들으신 바 되었는가?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계신다. 다만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을 뿐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를 세워 지도자로 삼는데 걸린 시간은 80년 아닌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았을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9. 다니엘의 힘을 돋우는 그 한 손이 바사국 군(=君, 왕)에게 21일 동안이나 저지를 당했다. 영적인 그 손을 막은 바사국 군은 어떤 존재라고 해야 하나? 사람일 수 없는 증거를 찾아보자.

바사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탄, 혹은 하수인: 다니엘에게 파송된 천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미가엘을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참고, 유 1:9). 땅 위의 세력들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 이들이 주관하는 대로 이 땅에서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10. 하나님의 천사가 바사국 군에게 밀린다?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가?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천사는 바사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니엘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동시에 다 감당하기는 벅찼던 모양이다.

11. 9장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0장의 기도도 역시 이스라엘의 가까운 장래나 현재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은 어떤 점에서 동문서답 아닌가?

말일에, 오래 후의 일: 다니엘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곧 이스라엘은 놓여날 것이며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먼 훗날 있을 종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자신의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된다. 야곱, 한나, 다윗, 솔로몬, 병 고치려 예수님께 온 자들...

12. 다니엘이 사자를 처음 보았을 때는 '한 사람'이라고 하더니(5) 같은 분을 가리켜 이제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16)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내 형상은 사람 같아도 전혀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은 힘대로 다 빠져버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죽을 것만 같다는 뜻 아닐까? 16절의 '이 이상'이란 거대한 천사의 출현을 가리킨다.

13. 18절 번역은 '사람 같은 그 분이 다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몇 번째 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다(10, 16, 18): 한 마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도 인간을 상대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인간의 협력이나 노력 없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라x2, 평안하라, 강권하라x2). 다니엘이 스스로 힘을 내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힘을 돋우신다.

14.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기 위함(21): 인자 같은 이는 앞으로 바사군과 싸울 것이며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과거에는 다리오를 강하게 한 적도 있다(11:1). 역사가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배후에는 천사와 악령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히데겔: 티그리스강을 가리킨다.

우바스: 아라비아에 있는 금의 산지(렘 10:9)

다니엘 11장

1. 다음 글은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있었던 페르시아(바사)의 쇠퇴에 대한 역사이다.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고레스의 아들 캄베이스스는 자기 형을 비밀리에 암살하고 왕권을 물려받았다. 말년에 이집트에 원정 갔을 때 죽은 형 스메르디스가 나타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객사하고 만다. 사실은 가우마타란 장군이 형의 이름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캄베이스스의 장군 다리오가 수도로 진격하여 가짜 스메르디스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헬라를 공격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의 뒤를 이은 크세룩세스 1세(아하수세로 B.C. 486-465)는 부요하고 권세가 컸으며(에 1:1-12) 그리스를 침입하여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다리우스(다리오) 2세 때 잠시 왕성하다가 알렉산더에게 패하고 역사에서 사라진다.

바사의 역사를 2절 한 절로 요약했다: 심히 부요한 넷째는 크세룩세스가 확실하다. 알렉산더의 반격을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앞의 세 왕은 캄베이스스, 스메르디스(가짜), 다리오라고 해야겠다. 고레스는 예언이 주어질 시점에 이미 왕이었다. 바사와 헬라의 중첩기간(B.C. 539-323)은 2세기 이상이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바로 알렉산더의 이야기로 넘어가버렸다.

2. 단 11장은 정확하게 헬라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언이 아니라 훗날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헬라의 역사를 읽으면서 서 본문과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보자(3-35).

헬라(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하고(3, **능력있는 왕**) 32살의 나이로 죽었다(B.C. 336-323). 그 후에 부하 장수들의 격렬한 싸움 끝에 나라는 마케도니아(카산더), 드라게-소아시아(리시마쿠스), 시리아-메소포타미아(안티고너스, 셀루커스), 이집트(톨레미)로 네 조각이 났다(4).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도 죽임을 당하고, 알렉산더의 유일한 후손인 아이(알렉산더)가 있었으나 암살당하였다(4하).

안티고너스 휘하에 있던 셀루커스 장군은 안티고너스에 쫓겨 이집트의 톨레미(5**절의 남방왕**)에게로 갔다. 톨레미의 휘하에서 안티고너스를 무너뜨렸지만 톨레미와 결별하고 시리아 지역에 독자적인 셀루커스 왕국을 건설하여 결국은 톨레미 1세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5하). 그 후 톨레미 2세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승리하여 자기의 딸 버니케(Berenice 베레니스)를 왕비로 삼게 했으나 톨레미 2세 사후에 안티오쿠스 2세는 소아시아로 쫓겨간 본처 라오디게(Laodice)를 찾아가다. 라오디게는 남편을 살해하고 안디옥에 있던 버니케와 그의 아들마저 살해하고 자신의 아들 셀루커스 2세(B.C. 246-226)를 왕위에 올렸다(6). 톨레미 3세는 누이의 암살 소식을 듣고 시리아를 침입하여 셀루키아와 안디옥을 함락했으며 은 40,000 달란트와 값비싼 그릇 2,500 점과 우상들을 본국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은 캄베이스스가 애굽을 정복했을 때 가져갔던 것이었다.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7-8).

셀루커스 2세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장남은 잠깐 통치했으나 소아시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차남인 안티오쿠스 3세가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후 시리아 지역을 회복하고 이집트의 톨레미 4세와 전투를 벌였다(10, **아들들 그가**). 톨레미는 2만의 보병, 5천의 기병, 73마리의 코끼리를 동원하였다. 이집트가 우세하여 안티오쿠스가 퇴진하였고(보병 1만, 기병 300, 코끼리 5마리가 죽음을 당하고 4천 명이 포로로 잡힘) 팔레스틴은 이집트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11하-12). 주전 201년에 다시 안티오쿠스는 팔레스틴으로 밀고 내려왔다(13-16). 팔레스틴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서 이집트군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14). 그러나 유대인들은 독립을 얻기는커녕 더 악랄한 시리아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14하). 안티오쿠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애굽의 장군 스코파스였는데 몇 번의 패배를 당한 뒤에 마침내 시돈에서 토성을 쌓고 공격을 하여 승리를 얻었다. 애굽에서 여러 장수를 파견했지만 시돈의 포위망을 풀지는 못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된 안티오쿠스는 헬라화 정책을 강요하였다.

세력이 훨씬 커진 안티오쿠스가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톨레미 5세에게 주고 동맹을 맺었다(17상). 그러나 딸이 아버지의 뜻을 좇지 않고 남편을 더 위함으로 딸을 통해서 이집트를 장악하려던 꿈은 깨어지고 말았다(17). 이 때 로마가 세력을 확장해오는 것을 막으려고 헬레스폰트 해협에서 대접전을 벌였으나, 둘째 아들(후일에 안티오쿠스 4세)을 인질로 잡히고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18). 안티오쿠스 3세는 조공도 바쳐야하고 전력 보강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수사근방의 신전에서 보물을 탈취하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다(19). 그 뒤를 이은 첫째 아들 셀루커스 4세도 지방을 돌면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하다가 왕위를 노리는 헬리오도루스의 반란으로 암살당하고 말았다(20, **토색하는 자**). 인질에서 풀린 안티오쿠스 4세가 동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느긋하게 있던 헬리오도루스를 제치고 교묘하게 왕위를 차지한다(21). 그는 자신을 '명백한 자', 혹은 '비추는 자'란 뜻으로 에피파테스라고 불렀으나 사람들은 그를 '미친 놈'이란 뜻으로 에피마테스라고 불렀다. 안티오쿠스는 교묘한 기만술을 통해서 세력을 키웠다.

이집트를 침공하여(25) 톨레미 6세와 화친을 맺는 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며 안티오쿠스가 선수를 쳐서 장수들은 많이 죽였으나 톨레미는 간신히 도망해버렸다(26-27).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횡포를 부렸다. 이듬해 재차 이집트를 침공하여 수도 함락을 눈앞에 두

했으나(29) 때마침 로마군대가 도착하였다(30절 상). 로마의 장군 가이우스가 안티오커스를 만나 강압적으로 철수할 것을 명하였다. 인질로 잡혀 던 시절에 무섭고 두려웠던 로마의 장군이었으므로 굴욕적으로 철수하고 말았다(30절 하).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러 사람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를 금하고, 성전 뜰에 주피터 신상(열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기물에 뿌렸다(31). 유대종교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유대인의 규례를 폐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극히 부패하여 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했다. 안티오커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메넬라우스는 헬라왕의 편이 되어 자기 백성을 괴롭혔다(30하).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앞잡이가 되어 유대종교를 행하는 사람을 고발하여 박해하고 죽였다(32, 34). 이 때 모딘이라는 작은 동네의 제사장 맛다디아스가 헬라 신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유대인 관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 이들이 마카비인이다(32하). 그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헬라군대와 싸웠다(35).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중지했다가 몰살당하기도 했다(마카비 상 2:31-38, 마카비 하 7: B.C. 164년 12월에 마카비인들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여 제사가 재개되었다(하누카, 수전절).

3. 알렉산더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핵심은 누구에게 있을까?

마지막 왕 안티오커스 4세가 가장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 한번도 왕으로 칭하지 않았다(27절은 톨레미 때문에?). 다른 왕들도 북방왕이라고만 불렀다.

4. 36절에서 나타나는 '이 왕'은 누구일까? 정상적이라면 바로 앞에 나온 안티오커스 4세로 보아야 한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스스로를 높여 신보다 크다는 것: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말인데 안티오커스는 아니다.

조상들의 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티오커스는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유대백성들에게 헬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다. 이런 경우는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집트를 침입하여 정복하고 리비아와 구스까지 굴복시킨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두 번이나 이집트 원정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런 왕은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안티오커스와 비슷한 것은 그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5. 그 왕은 열조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란 것은 자신이 신으로 군림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비, 부드러움, 친절 등을 우습게 여기는 자일 것이다. 드라마에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듯한 독재자의 모습을 연상하면 될까?

6. 이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대체로 돈과 결부되어 있다. 적그리스도도 돈의 위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세력의 신에게 보물을 드림(자기가 신이면 자기가 보물을 받는 셈) 뇌물: 돈만 밝힌다고 비난을 받는 교회도 더러 있어서 반성해야겠지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돈에 최종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이다.

7.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10:1).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우던 모습을 원용하여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마치 물이 넘침같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며 지나갈 것이다. 유대땅을 거쳐 애굽을 치고 당시로서는 가장 남쪽이라고 여겼던 리비아와 구스까지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무슨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유대 땅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것: 동북에서 들린 소식, 바다(사해, 혹은 갈릴리, 혹은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예루살렘) 사이에 진을 쳤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8. 온 세상을 휘젓던 적그리스도의 끝이 이르렀다. 어떻게 이 세력이 꺾일까?

대군 미가엘 때문이다(12:1)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군 미가엘이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일어나 행동할 것이고 이로써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장 절은 임의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렇다. 12:1은 11장에 붙어 있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1.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환란이 있다는 말인가? 미가엘도 적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위력이 없다는 말인가? 11:45절 끝에 적그리스도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을 참고하면 대환란은 그 이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대환란에 대한 시기는 11장의 어느 부분을 묘사한 것인가?

11:41: 안티오커스 4세 시대에도 민족을 배신하고 헬라화에 앞장선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였다. 신실한 무리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였다.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란 뜻이다. 1절의 '그 때'는 11:40의 '마지막 때'와 같은 때이다.

2.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하셨는데(마 24:21-22),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있다면 걱정인데?

예수님께서는 날을 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본문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3.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1) '책에 기록된 모든 자'와 동일한 표현을 아는 로 말해 보자.

택함 받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겔 13:9), 생명책에 기록된 자(계 20:12, 출 32:32-33, 눅 10:20)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 오셨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를 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선택이다. 인간 편에서 보면? 어렵다! 예수를 믿은 후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내가 선택을 받았음을 그제서야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선택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감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을 말할 이유가 없다.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조차 우리가 할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뿐이다. 내가, 혹은 누군가가 선택을 받았는가? 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더구나 불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4. "내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어떡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께 혼나기 싫어서 죽어버린 녀석이 있었다.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본문을 근거로 지적해 주어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1) 다시 살아난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2)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형벌을 받든지 해야 한다.

5. 적그리스도의 때에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탄생되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들일까? 안티오커스 4세 때의 일에서 짐작할 수 있다.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다.

6.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3). 이것은 다른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이다. 단순히 많이 아는 자가 아니다. 단순히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자.

환란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격려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한 사람들이다.

7. 봉합하라(4)는 것은 알리지 말라는 뜻인데?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봉합해서 간수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말세에는 어떻게 되는가?

지식이 더해지면 알 수 있을 것이다(4, 10c).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왕래하다'는 말은 단순히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다(search)'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많이 연구하여 지식이 급증할 것이며 다니엘에게 준 계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봉인의 또 다른 의미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서류는 봉인을 해서 보낸다. 함부로 뜯을 수 없다. 개봉될 때까지 결코 바뀔 수 없음을 뜻한다.

8. 이 기사(5)의 끝이 어디며(6)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느냐(8)는 질문의 대답을 들은 결과는 무엇인가?

깨닫지 못함(8) 알지어다'는 말씀은 질문에 대한 완곡한 거절 같다: 대답을 듣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합해 두라고 하셨다. 마지막 때에는 계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계시를 주시면서도 적절한 때가 되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정확한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도 같은 현상이다(마 24:36). 적그리스도의 환란

때가 되면 열심히 말씀을 살피는 자가 종말의 정확한 때를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9.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환란을 주는 기간이었다(7:26). 이것은 계시록 12장의 ()일, 세 때 반과 같은 기간이다. 이 기간들이 정확하게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므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1260: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반이라면 쉽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다. 엘리야 시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생했던 기간이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아보셨던 기간이다.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돌보셨듯이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실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10.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눅 18:8)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외형상으로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많기 때문 아닐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란 대환란이 성도들이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간다는 것 같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을 가릴 수 있기 때문 아닐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회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10).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라는 표현은 8:13, 11:31에 나왔던 말이다. 여기 이 구절과 앞의 두 구절을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인가?

주체가 다르다: 앞의 두 구절의 주체는 안티오커스 4세지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다. 사실은 앞의 두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한 예표적인 구절이다.

12. 1290일이나, 1335일이 의미하는 정확한 기간은 그 때가 되기까지는 의미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때가 될 때까지 물어두신 것은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예상하지 않는 것이 잘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숫자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무리 혹독한 환란이 닥친다 해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환란을 견뎌낼 힘과 위로를 줄 것이다.